

임금노동자 30년새 2배

63년~93년 고용사정 추이

제조업→서비스 '노동자 대이동' 실업률 하락속 '고학력'은 늘어

이봉수 기자

지난 30년간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두배로 늘어 취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으나, 최근에는 생산노무직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신 서비스업 취업자가 급증하고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0년간 고용사정 추이'에 따르면 총취업자 수는 63년 7백56만명에서 93년 1천9백25만명으로 늘어 2.5배가 됐다.

봉급쟁이라 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 수는 63년에 일용직 96만명을 포함해 2백38만명이었으나, 93년에는 일용직 1백71만명을 포함해 1천1백75만명으로 늘어 4.9배가 됐다. 이 기간에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1.5%에서 61%로 높아졌다.

대신 임금을 받지않는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68.5%에서 39.0%로 줄었다. 특히 가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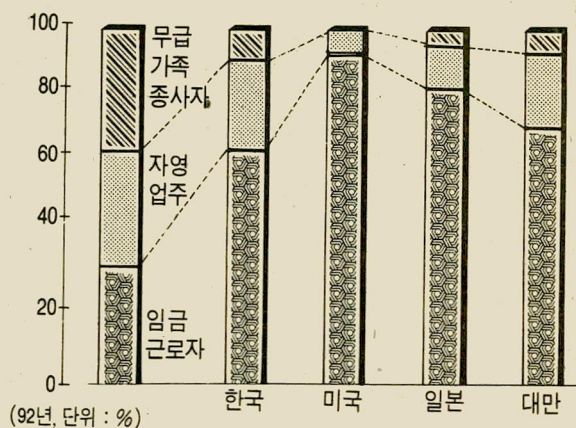
돕는 가족종사자 수는 63년 2백36만명에서 93년 2백7만명으로,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31.2%에서 10.8%로 떨어져, 근대적인 고용구조가 형성돼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통계청 강계두 사회통계과장은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61.0%로 많이 높아졌지만 주요 선진국의 80%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30년간의 전반적인 고용지표 변화를 살펴 보면 취업자에 취업희망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3.0% 늘어나 경제활동참가율은 63년 56.6%에서 93년 61.1%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실업률은 8.1%에서 2.8%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34.4%에서 40.0%로 높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가 진학을 상승으로 78.4%에서 76.0%로 떨어진 반면 여자는 고용여건 개선으로 37.0%에서 47.2%로 대폭 상승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일

고용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국제비교



하려는 노령인구도 꾸준히 늘어나 55살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8.6%에서 14.1%로 증가했다.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의 특징은 △생산노무직 인력감소 △취업구조의 서비스화 △고학력 실업 문제 등이다.

제조업의 생산노무직은 87년까지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다가 88년 이후 급격히 둔화된 뒤 92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92년에는 24만5천명, 93년에는 20만4천명이 빠져나가 3백42만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신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산업 취업자 구성비는 85년에 50%를 넘어선 뒤 93년에는 60.9%로 60%를 넘어섰다.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

자의 구성비는 82년에 20%를 넘어선 뒤 93년에는 25.1%에 이르렀다. 이는 독일의 15.6%와 미국의 20.7%는 물론 대만의 21.3%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총실업자 수는 80년 74만명에서 93년 55만명으로 줄어 실업률은 2%에서 2.8%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졸 이상 실업자는 80년 6만명에서 93년 14만명으로 늘어 실업률은 6.2%에서 4.0%로 떨어지는 데 그쳤다. 대학을 졸업한 지 몇년 되지 않은 20~24살 고학력자는 93년 현재 실업률이 13.0%에 이르렀다. 이는 산업계에서 전문 기술인력을 많이 원하는데도 대학에서 인문사회계 졸업자를 많이 배출하는 등 인력 수급구조가 잘못 돼 있기 때문이다.